

미 의회, 미 수은 인가시한 임시(9개월) 연장

(2014. 9. 22)

워싱턴 사무소

- 이번 달 말로 법적인 인가시한이 도래하는 미 수은에 대해 미 의회는 지난 9. 18일(목), 동 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9개월간 임시로 연장하는 동의안을 가결하였고,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다음날(19일) 서명함.
- 동 법안은 이슬람국가(Islamic State) 대항을 위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과 함께 통과되었으며, 이로써 9월말 인가시한 도래에 따라 급박하게 논의되던 미 수은의 재인가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됨
- 이 같은 임시 시한 연장에 대해 미 수은의 Fred Hochberg 은행장은 성명을 통해 “일반기업들이 (장기적인 계획 없이) 월마다 새롭게 수출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듯이, 미 수은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미국의 훌륭한 제품들이 외국의 공격적인 경쟁기업 제품에 시장을 잃어서는 안 된다”고 표현, 이번 조치에 대해 예들려 불만을 표시함과 아울러 “그동안 초당적인 지지로 미 수은은 16번에 걸쳐 인가가 연장되어 왔으며, 나는 미 수은의 (존속과 관련된) 장기적인 해법을 찾을 자신이 있고, 이는 미국의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원하는바”라고 천명함.
- 이번 임시 인가연장 조치는 미 의회가 일단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 때 까지 미 수은 재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유보한 것으로 해석되며,

선거 이후 내년 6월까지 민주-공화 양당 및 각 이해 단체간
본격적인 논쟁과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.